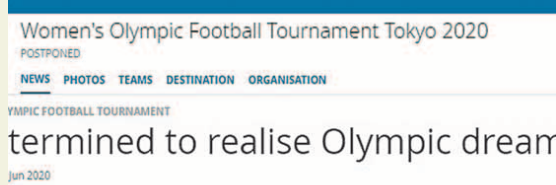


FIFA 집중 조명 지소연, “내년 2월 중국전, 실수 적게 하는 팀이 올림픽 간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대들보’ 지소연(29·첼시FC 위민)을 집중 조명했다(사진). 지소연은 ‘올림픽의 날’인 23일(한국시간) FIFA 공식 홈페이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올림픽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한국 여자축구는 FIFA 여자월드컵 본선무대를 3차례(2003년 미국·2015년 캐나다·2019년 프랑스) 경험했지만 올림픽 본선엔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다. 올림픽은 본선 진출 쿼터가 월드컵보다 적다. 중국·일본·호주·북한 등 세계적인 강호들이 즐비한 아시아 예선을 통과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올림픽 예선에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는 것이 지소연의 회상이다.

그러나 1년 뒤로 미뤄져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은

다르다. 일본이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자동 진출하면서 우리에게도 큰 기회의 문이 열렸다. 한국은 홈&어웨이로 펼쳐질 중국과의 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를 통과하면 처음으로 올림픽 진출 티켓을 얻는다.

중국과의 PO는 올해 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차례 연기된 끝에 내년 2월 19일과 24일로 최종 확정됐다. 지소연은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한국과 중국은 많이 만났고 서로를 잘 안다. 실수를 적게 하는 팀이 올림픽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부임 후 여자대표팀을 긍정의 방향으로 끌여가는 폴린 벨 감독(잉글랜드)에 대한 믿음도 분명했다. 지소연은 “대표팀에 젊은 선수가 많아졌고, 좋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돕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정현 기자**

‘중립지역’서 조별리그 모두 소화…챔피언스리그 재개 움직임 속 과제들 산적

ACL 10월 중순? K리그 파이널R 어쩌나

K리그 10월부터 우승·강등 전경 4개팀 빠질 땐 막판 레이스 파행 WC예선 일정도 겹쳐 참가팀 불만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0월 중순 챔피언스리그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팀당 6경기씩인 조별리그를 모두 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다. 그러나 얽혀있는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3월 호주에서 열린 시드니FC-전북 현대의 조별리그 H조 2차전 당시 모습.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 대한 AFC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회를 완주하는 것이다. 아시아 최강 클럽을 가리는 이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2강 조별리그 1·2라운드만을 치른 채 3월 초 중단됐다.

최근 데일리스포츠, 닷칸스포츠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AFC는 10월 중순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팀당 6경기씩인 조별리그를 모두 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다.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립지역에서 조별리그 잔여경기(16강 단판승부를 펼친 뒤 8강(11월 25일)~4강(11월 28일)~결승(12월 5일) 역시 단판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축구계의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들은 23일 “AFC는 가장 큰 자금줄인 스폰서의 입장과 TV 중계권 수익 등을 고려해 ACL을 최대한 소화하려고 한다. 동·서아시아 팀들이 각 지역의 그린 존(안전지대)에 모여 미뤄진 조별리그를 치를 수 있다면 완주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관건은 조별리그다. 토너먼트는 중전 홈&어웨이 대신 단판으로 조정하면 일정 또한 각국 사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참가팀들이 대거 모이는 조별리그를 개최할 ‘그린 존’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국경봉쇄도, 해외여행자의 자가격리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AFC는 ‘그린 존’으로 정해질 회원국 정부의 협조를 구해 클럽별 참가 선수단을 최소화해 코로나19 검

사만 받고, 철저한 방역이 이뤄진 지역(호텔·훈련장·경기장)에만 머물며 경기를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 11월 ACL 진행에는 또 다른 어려움도 있다.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다. AFC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동의를 구해 3·6월 예선 일정을 10·11월로 미뤘다. 투르크메니스탄(홈)~스리랑카(원정·이상 3월), 북한~레바논(이상 홈·6월)으로 잡혔던 한국

의 스케줄도 10, 11월로 연기된 상태다. 물론 ACL과 월드컵 예선을 같은 시기에 펼치는 우를 AFC가 범하지 않았지만, 소속 선수들을 국가대표팀에 내줘야 하는 전북 현대, 울산 현대, FC서울, 수원 삼성 등 ACL 출전 클럽들의 불만은 커질 수 있다.

K리그로서도 ACL의 10, 11월 개최 시 부담이 따른다. K리그1(1부)은 10월 4일 정규리그 22라운드까지 마친 뒤 상·

하위 6팀씩 나눠 파이널 라운드(팀당 5경기)를 펼쳐 우승과 K리그2(2부) 강등팀을 가릴 계획인데, ACL 참가를 이유로 4팀이 빠지면 막판 레이스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또 귀국 후 국내 자격 리도 염두에 뒀어 하므로 한참 동안의 공백도 염두에 뒀어 한다. 이래저래 걱정만 쌓이고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ACL과 아시아축구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스토리 사커

군 팀 상무와 연고지 인연 광주는 흐뭇, 상주는 씁쓸

한때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군대에서 축구팀을 운영했다. 차범근의 공군, 이회택의 해병대 등이 유명했다. 육군 안에서도 다양한 부대가 축구팀을 만들어 자존심 경쟁을 벌였다. 축구가 곧 전장이던 시절의 얘기다.

군팀이 하나로 통합된 건 1984년이다. 축구뿐 아니라 군대 내 모든 경기단체가 국군체육부대로 합쳐졌다. 그때 상무(尙武)와 불사조(마스코트)가 생겨났다. 상무의 축구팀 전력은 막강했다. 그 해 실업리그에서 정상에 오르며 이듬해 프로팀들이 참가하는 슈퍼리그의 일원이 됐다. 하지만 군팀의 한계 때문에 한 시즌 만에 실업부대로 돌아갔다.

프로리그에 다시 참가한 건 2003년이다. 광주시는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광주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신생팀을 창단하기보다는 상무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채택해 연고협약을 맺었다. 군팀이 처음으로 연고지를 갖게 됐다.

하지만 말이 프로팀이지 초창기 실질적 운영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맡았다. K리그의 질적 저하와 함께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가 공존하는 상무의 정체성 논란 등이 있었지만, 팀 수 증가와 축구시장 확대라는 명분으로 상무를 받아들였다. 또 군 복무를 하는 프로선수의 경기력 저하를 최소화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동국(전북 현대)이 광주상무 출신이다. 상무와 광주시의 동행은 2010년까지 이어졌고, 광주는 약속대로 시민구단을 창단했다.

상무가 새 등지를 찾은 건 2011년이다. 상주시와 연고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다. 아시아 축구연맹(AFC)이 요구하는 ‘프로구단의 독립법인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 강등됐다. 한때 경기 보이콧을 선언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2012년 말 법인 등록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수습됐다.

2013년 2부(당시 챌린지)에 참가한 상주의 성적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챌린지 초대 우승팀으로 2014시즌 1부(당시 클래식)에 올랐지만 꼴찌를 하며 다시 강등됐다. 2015시즌 2부 우승으로 승격했고, 2016년 이후 1부에 잔류했다. 이번 시즌 8라운드 현재 3위다.

상무와 상주의 계약은 올해 말까지다. 상무는 새 연고지를 찾고 있는데, 김천시가 유력하다. 내년에는 김천 상무로 2부에 참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주는 시민구단 창단을 포기했다. 재정적 이유로 운영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프로구단을 운영한다는 자부심은 물론이고 구단 직원들의 운영 노하우 등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상주하면 꽃강과 함께 축구단이 떠오를 정도로 자리를 잘 잡았기에 더욱 안타깝다.

최현길 기자 choi92@donga.com

‘최다실점’ 서울, 운영선 임대로 수비진 재정비



Yoon Young-seon (32·울산 현대)을 영입했다(스포츠동아 6월 17일 단독보도). 서울은 23일 “윤영선을 연말까지 임대 영입했다. 젊고 파이팅 넘치는 기존 수비진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단한 피지컬과 스피드를 갖추고, 위치선정이 뛰어난 윤영선은 2010년 성남 일화(현 성남FC)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울산 소속으로 뛴 지난해까지 K리그 235경기(6골)에 출전했다. 수비진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다양한 포메이션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다는 평가다. A매치 커리어는 7경기로, 그 중 하나가 독일을 2-0으로 무너트린 2018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이다. 그러나 올 시즌은 좋지 않았다. K리그 정상에 도전하는 울산이 정승현과 김기희를 영입해 설 자리가 줄었고, 결국 새 등지를 찾게 됐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토틀넘도 김민재 영입전 가세...인터뷰 논란 덕?

베이징과 불협...유럽구단들 러브콜 토틀넘 “손흥민을 통해 협상 시도”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열심히 노력해온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최근 축구계에선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4·베이징 귀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당초 전북 현대가 임대영입을 추진했지만, 불과 보름 남짓한 동안에 유럽 명문 리그 팀들이 그에게 달려들고 있다. 이제

전북은 김민재 영입 자체를 고려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22일(한국시간) “토틀넘이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다. 손흥민을 연결고리 삼아 협상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김민재는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자신의 꿈인 유럽 빅리그 진출을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김민재의 이적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예상치 못한 일에서 비롯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그는 지난달 국내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했다. 여기서



김민재

유럽 진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베이징이) 보내줘야 간다”고 답했다. 또 “나는 올라가서(전진해서) 수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베이징에서는 다른 수비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더 유럽에 진출하고 싶다. 유럽은 대부분의 수비수까지 올라간다”고 말했다.

웃어넘길 수도 있는 얘기였지만 베이징 팬들은 물론 중국 매체들까지 “김민재가 동료들을 무시했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김민재의 팀 합류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까지 벌이기도 했다. 베이징 구단과 김민재의 사이에 금이 갔다.

베이징과 김민재가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서 그를 탐냈던 구단들이 영입에 나설 수 있는 틈이 생겼다. 당시 인터뷰와 이에 대한 중국 팬들, 매체들의 민감한 반응이 김민재의 유럽 진출을 앞당기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유럽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프로 데뷔 초창기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김민재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국가대표 주전 수비수 자리를 꿰차며 ‘빅리그로 향한 선수’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스스로도 자신감에 차있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에서 기회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그러나 늘 준비돼 있어야 한다. 준비된 김민재는 꿈을 이룰 기회를 잡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